

---

第60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社會福祉委員會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日時 1993年2月24日(水) 午後2時

場所 社會福祉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1993年度家庭福祉局所管業務報告
  2. 1993年度地方公社江南病院所管業務報告
- 

審査된案件

1. 1993年度家庭福祉局所管業務報告 ... 2面
  2. 1993年度地方公社江南病院所管業務報告 ... 18面
- 

(14時 10分 開議)

○委員長 車奉五;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第 60回 臨時會 제2次 社會福祉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존경하는 同僚委員 여러분, 家庭福祉局長님 이하 關聯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바쁘신 日程인데 불구하고 오늘 家庭福祉局所管 業務報告會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協力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이 豫算도 編成해 드렸고, 또 決算도 해 드렸고, 또 1년 동안 우리 行政監査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確認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今年, 93年度 처음 1년 동안 할 業務計劃 報告를 받게 되는데 과거 1년 동안 한 實績에 비추어 다시 한 번 再檢討하고,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業務執行을 하는 데 효율적인 그러한 執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좋은 결실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1년동안 우리 申泰姬 局長님 이하 모든 關係公務員들이 열심히 잘 奉仕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이 業務報告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에게 確信을 심어 줄 수 있는 이러한 契機가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千萬市民의 家庭福祉에 대한 그 내용이 충분히 잘 傳達될 수 있는 이러한 契機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業務報告를 하시고, 또 저희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質問도 하고 答辯을 통해서 오늘 日程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家庭福祉局 申泰姬 局長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 하나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 1. 1993年度家庭福祉局所管業務報告

(14時 14分)

○委員長 車奉五; 1993年度 家庭福祉局業務所管現況報告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우리 申泰姬 局長님 나오셔서 業務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申泰姬; 존경하는 車奉五 委員長님, 그리고

社會福祉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지난해 市政監査와 豫算審議를 통해서 우리 家庭福祉局의 業務에 많은 指導와 成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財政與件 속해서도 家庭福祉豫算에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事業을 推進해서 委員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倍前의 노력을 傾注하겠습니다.

義務報告에 앞서서 먼저 家庭福祉局 幹部를 紹介해드리겠습니다.

(幹部紹介:家庭福祉課長 閔庚台, 婦女福祉課長 金愛良, 九老婦女福祉館長 金鍵植)

이어서 93年度 家庭福祉局 主要業務計劃을 報告드리겠습니다.

.....  
(報告)

가정복지국 주요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  
以上으로 家庭福祉局 主要業務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車奉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家庭福祉局所管 主要業務報告를 해주셨습니다. 그 內容 가운데 質問事項이 있으시면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直 委員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李秉直 委員; 李秉直 委員입니다.

局長님, 천천히 읽으셔야지 內容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조금하게 마음을 가져서..... 대충 보니까 意

慾에 찬 것 같은데, 이게. 그리고 이 內容 中에는 그냥 이렇게 써 놓은 것이 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實現性이 별로 없는 것도…….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質疑코자 하는 것은 不遇老人에 대한 收容施設 擴充에 대한 것이 제일 첫 번에 아주 보기 좋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選定된 場所는 어디 어디며, 不遇老人에 대한 收容施設,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좀, 이게 제일 아주 그냥 눈에 들어오는데.

○委員長 車奉五; 네, 答辯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申泰姬; 不遇施設로서 지금 中風患者, 中溪洞에 짓는 것 거기에다 치매老人 그런 施設을 增設하는 것하고, 또 그 다음에 해명요양원에, 현재 해명요양원 近處에 福祉館으로 運營하고 있던 것을 고쳐서 요양원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豫定으로 있습니다, 九老에.

○李秉直 委員; 九老 해명요양원 福祉館에…….

(「林承后 委員……」하는 委員 있음)

가만 있어요, 제가 지금…….

○委員長 車奉五; 가만, 지금 答辯中이시니까 조용히 해 주세요.

○李秉直 委員;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천천히…….

○委員長 車奉五; 李秉直 委員님, 追加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李秉直 委員; 제가 작년부터 지금 계속 局長님한테 일거리를 드리면서 이렇게 좀 노력해서 뭔가 우리가 숫자만 채우고 그냥 老人네들 가서 화투나 하고 춤이나 추고 노는 이런 것도 重要하겠지만, 또 老人大學도 重要하고. 하지만 그 중간에 노인탁노시설 있잖아요, 노인탁노시설. 名稱은 그렇겠지요? 노인탁노시설이라고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짓는데 그 탁노시설

하게 되면 좌우간 돈을 내고 가든 무료로 가든 길거리에 나앉은 老人네들, 또 몸 아픈 분들 그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서 收用도 하고 物理治療療法도 하고 서울市內에 정말 疎外階層된 老人네들 전부 集합시킬 수 있는 大型 그런 것을 그 전부 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은 안 나오고 뭐 엉뚱한 무슨 해명요양원 福祉館, 또 뭐요, 또..... 뭘 좀 일은 신경 좀 쓰셔서 하시라고. 제가.....

○家庭福祉局長 申泰姬; 現在 九老地域에 종합노인탁노시설을 이제 誘致해 주십사 하는 內容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檢討를 하고 있습니다. 在家奉仕事業機關하고 老人福祉機關에 의뢰를 해서 5坪 이상에 거실 2개 이상 등 그런 事業에 필요한 施設을 갖추면 設置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誘導를 하고 있고, 社會福祉法人이나 非營利法人에서 運營을 해서 託老施設을 運營토록 지금 93年度에는 3個所를 지금 擴充할 計劃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李秉直 委員; 지금 다른 데 하고 있는 것은 試驗的으로다 장난삼아 조금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家庭福祉局長 申泰姬;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李秉直 委員; 제대로 하려면 그 規模를 제대로 갖추어서 建物を 제대로 新築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여기 나와야지요, 오늘.

○家庭福祉局長 申泰姬; 그것을 지금 금년도에 하는데, 현재에 上溪洞에도 새로 짓는 그런 施設에는 晝間保護施設, 託老施設을 같이 誘致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空間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李秉直 委員; 거기 規模가 어느 정도예요, 거기는?

○家庭福祉局長 申泰姬; 그 晝間 데이케어센터 規模가, 坪數

가 지금 20坪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李秉直 委員; 20坪이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데, 20坪이면 老人네들 한 서너 너덧 분이 들어앉으면 다 될 텐데 말이지요, 다 차는데 그거 가지고 거기에 무슨 탁노시설이 되어요, 그게?

○家庭福祉局長 申泰姬; 그것은 竝設입니다, 竝設. 竝設로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모든 老人福祉施設에다 竝設도 하고, 또 이제 法人에다 晝間保護센터를 設置토록 誘導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施設이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秉直 委員; 제가 간단하게 結論을 짓지요. 뭔가 하면 숫자만 이렇게 늘릴 것이 아니고 電鐵驛附近쯤 이래서 交通 좋은 데에 位置를 選定해서 서울市內의 그 어려운 분들, 身體的으로나 精神的으로나 모든 면에 어려운 분을 전부해서 餘暇善用도 하고 健康도 維持하고 또 治療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다양한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계속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깊게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그냥 뭐 이런 것만 꾸미는 데만 관심을 두셔서...... 局長님!

○家庭福祉局長 申泰姬; 네.

○李秉直 委員; 좀 깊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깊게.

○家庭福祉局長 申泰姬; 네, 알겠습니다.

○李秉直 委員; 네, 됐습니다.

(「제가.....」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車奉五; 다음 林承后 委員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承后 委員; 林承后 委員입니다.

해명요양원 建立 推進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에 이 요양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더 質疑를 하려고

합니다.

해명요양원 建立에 따른 問題가 이 地域에서 크게 民願이 發生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始興2洞, 5洞 주민들이 태채란 외 210여명의 陳情書를 보사 부장관하고 서울시장에게 지난 2월초에 郵便 送達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 있는 有關團體長과 指導級 유력인사들이 지난 1월에 모임을 가지고 요양원 건립에 반대하는 결의를 다짐을 하고, 이에 대한 反對活動을 전개키로 이런 다짐대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 反對理由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始興2洞, 始興5洞 住居密集地域 한 복판에다 사실상 靈安施設이 運營되는 靈安室 建立은 절대로 反對다 하는 얘기입니다. 50餘名에 이르는 병든 長期治療 老人患者의 수용 自體에 대해서 住民들의 과민적 거부 의식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老人들은 死亡率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施設 自體가 靈安室의 施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住居地域 한복판에서 運營되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목인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地域住民들의 主된 反撥을 일으키게 하는 原因입니다. 앞으로 이런 地域住民들이 抵抗은 결사적 沮止라는 目標를 정해 놓고 組織的이고 合理的으로 이것을 實行할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아주 高調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當局의 見解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本委員이 해명요양원이 建立되고 있는 같은 地域에 居住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住民의 民願解消 次元에서 本委員은 이 問題가 解決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老人福祉 次元에서 요양원 設立에 대한 절실한 필

요성은 認定합니다. 地域 한복판에다, 그 곳 밖에 할 곳이 없느냐 하는 이런 住民의 타당한 그런 理由가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묵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再開發事業이 施行이 되고 있어요. 지금 工事를 하고 있습니다. 그 再開發地域 바로 위에, 산에 國有地가 한 1,000 몇 坪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도선사 財團에서 老人福祉施設을 施行할만한 그런 아주 강렬한 意志가 있다면 말이에요, 확실한 그런 意志가 있다면 지금 建立하는 이 地를 賣却을 하면 이 賣却한 돈 가지고 市나 國費를 提供을 안 해도 그 돈 가지고도 그런 國有地 그 싸고 아주 環境도 좋고 住民의 그런 民願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좋은 立地條件이 있는 그런 땅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서 자기들이 그 돈 가지고 해도, 市에서 支援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이런 與件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런 決死的인 民願의 對象이 되고 있는 이 곳에다 이것을 꼭 施行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는 本委員도 똑같은 反對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家庭福祉局長의 見解를 듣고자 합니다. 좀 희망적이고 좋은,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런 時節이 아니고 이런 수많은 그런 住民들의 民願의 解決이라는 그런 次元에서 적극적인 그런 對策이 樹立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保育教師 實技教育內容, 13페이지에 있는 保育教師 實技教育내용을 보면 유아음악, 美術, 工作活動, 이 幼稚園 教師와 동일한 專門分野로 幼稚園教師와 保育教師는 똑같은 保育資格 認定者입니다. 또 어린이집 施設에 收容되어 있는 어린이들은 幼稚園과 똑같은 教育過程이 實施되고 있습니다. 또 이 어린이집의 施設을 利用하는 어린이들 중에는 幼稚園 適齡兒들과 똑같은 그런 適齡兒童들이 여기



또 收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問題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린이 早期教育에 대한 관심과 教育熱이 폭발적으로 增加 趨勢에 있음으로 해서 現在 幼稚園 施設로는 이를 다 收容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幼稚園 新入生 入學 競爭으로 인한 不正이라든가 또는 非理問題가 이미 新聞 紙 上에도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幼稚園과 똑같은 教育課程과 施設을 가지고, 또 教師도 갖추고 있는 이 어린이집이 유치원교육으로 정식 인정을 해 준다면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基本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幼兒教育 早期教育 側面에서 保育施設 運營의 큰 거점과 損失을 자초하고 있다, 심히 유감 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指摘하는 것입니다. 幼兒教育이 서울시가 아닌 教育廳 所管이라는 이런 소극적인 그런 發想을 우리가 버리고 이제는 좀더 적극적이고 또 發展的인 그런 行政開發 側面에서 어린이집의 幼稚園 教育課程을 正式으로 制度化해 주어서 幼兒保育과 早期教育이 그 成果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對策을 家庭福祉局이 적극적인 政策을 樹立해서 施行할 用意가 없는지 이것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車奉五; 그러면 答辯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申泰姬; 林承后 委員님 質問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명老人요양원에 지금 療養施設 建立을 反對하는 事項을 말씀하셨습니다. 垆地가 871坪에 建物이 312坪으로 되어 있는 것을 改·補修를 합니다. 287坪이 改·補修가 되고 增築

이 25坪이고 해서 收容定員 50名으로 計劃을 하고 있는데 事業費가 지금 補助金이 國費·市費 해서 1億 7,000萬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自負擔도 되고 그래서 國費補助가 지금 療養院을 지어라 하고 나와 있는 事項에서 推進을 하고 있는 中입니다. 그래서 一部 増築을 해서 이제 療養施設 建立을 하던 中에 그런 民願이 나왔는데 이런 것이 되면 집값이 떨어진다 는 등으로 해서 住民便宜施設인 社會福祉館으로 還元해 달라는 그러한 要旨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建立하는 趣旨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老人의 增加 趨勢하고 또 療養保護施設의 아주 절대적인 부족 현상을 解消하려고 하는 餘地가 있으면 전부 設置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거기에 老人요양원이 있는데 老人요양원에 收容되어 있는 老人들의 그 看病, 治療도 하고 또 요양원도 設置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民願事項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檢討를 하겠는데 設置 許可權者인 管轄 區廳하고도 意見を 좀 나누겠고 또 民원인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檢討를 해서 對策을 講究해 나가겠는데, 여기에 그러한 福祉館 形態의 施設로 設置를 해서 民願人들의 理解가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保育教師들 實技教育에서 음악이라든가 하는 幼稚園 教師하고 똑같은 教育內容을 하고 있는데 이런 問題에 대해서 아주 이러한 어린이집에 幼稚園 教育을 할 수 있는 그러한 機能을 다 正式으로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幼稚園 자격을 갖고 있는 保育教師에 대해서 금년 2월에 教員資格檢定令을 改正을 해서 어린이집의 保育教師를 幼稚園教師와 동일하게 3級資格

取得教育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집의 유능한 保育教師를 確保를 해서 어린이집에서 幼兒教育의 質을 한층 더 높여 나가는 것으로 하고, 그러한 教育廳이라든가 이런 주위 聯關된 機關과 連繫를 해서 앞으로 教育의 質도 높이고 또 從事者들의 資格도 確實하게 해서 바람직한 幼兒教育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以上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車奉五; 네, 卓炯春 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卓炯春 委員; 작년 年末에 저희 社會福祉委員들이 그늘진 곳을 좀 찾아보자 해서 청량리 典農洞 굴다리 밑에서 한 4年 동안 다일교회에서 缺食行旅老人들에 대해서 中食을 提供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그곳에 굴다리, 철다리 밑에 겨울철에 配食을 일정한 그 어떤 집에서 밥을 지어 가지고 와서 거기 굴다리 밑에서 配食을 하는데 그 老人들이 100名에서 200名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런대로 다리 밑이 시원해서 밥 먹기가 괜찮지만 날이 싸늘해지고 겨울철에는 아주 밥 먹는데 老人들이 따뜻한 밥을 해 가지고 가도 찬밥이 되어 버리고 아주 보니까 아주 참 딱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空地가 있는데 그게 鐵道敷地일 것입니다. 鐵道敷地인데 거기에 뭐 海兵戰友會 같은 그런 데는 소위 事務室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또 공터도 있어요. 그 공터에다가는 그 사람들이 車를 갖다가 駐車시키는 駐車施設을 해 놓고 그러는데 그 駐車한 그런 施設에다 假建物이라도 지어서 겨울철에 老人들이 따뜻한 곳에서 食事を 提供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措置를 우리가 바로 와서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런 저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機會에 家庭福祉局長이 그 缺食老人들을 위해서 그 그늘진 곳을 우리가 좀 찾아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假建物이라도 東大問區廳에서 소위 지을 수 있도록만 해 주면 자기네들이 다 짓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措置를 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假建物 짓는 데까지도 法的으로 별로..... 그 부근에 보면 無許可로 말이에요, 無許可로 포장마차집 같은 것 지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묵인하고 이런 缺食老人들에 대한 그 禮遇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인색해서 이 社會가 되겠느냐, 그런 次元에서 局長께서 좀 市長하고 상의를 해서, 區廳長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다 假建物を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措置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申泰姬;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車奉五; 答辯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申泰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典農洞 굴다리 밑의 人道에 低所得老人 또 浮浪人 등이 묵고 있는데 하루에 한 150名, 200名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일공동체교회에서 전농동 淪落街內 建物を 賃貸해서 그 곳에서 飮食을 조리해서 오후 1時頃에는 場所로 운반 給食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89年度부터 實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檢討한 것은 현재 中食을 提供하고 있는 敷地는 行政財産이기 때문에 일부 河川을 복개한 現況道路로서 法令上 建築物이나 假建物を 지을 수는 없게 돼있는데 關係 法令에 의거해서 이제 貸付, 賣却 또 交換, 讓與 또는 出資의 目的으로 하거나 또 그 用途 또는 目的에 障礙가 없는 限度內에서 用地를 使用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假建物を 築造를 해서 給食時 거리 浮浪人 등 우범 지역화를 우려하는 隣近 住民들의 反발이 豫想은 되고 있는

데, 그러한 緣故者 없는 浮浪人團束을 해서 一時保護所에 收容도 하겠지만 이들에게 給食處를 提供하는 것을 東大問區廳하고 トライ를 하고 있는 中인데, 그 敬老食堂에 대해서 設置 가능한 施設을 저희가 또 앞으로 確保 運營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檢討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車奉五; 네, 감사합니다. 康明秀 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康明秀 委員; 康明秀 委員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老人亭 운동기구 設置 支援에 關호해서 이제 區別 示範 設置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 問題는 저희들이 작년 豫算審議할 때 老人亭에 어떤 健全娛樂 또 健全한 분위기를 誘導하는 意味에서 화투장이라든지 장기 두는 娛樂 外에 運動기구를 좀 支援해 줌으로써 老人亭을 利用하는 老人들이 좀더 健康하게 生活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豫算支援이 되었는데, 여기 區別 示範 設置라고 하는 말이 저는 조금 꺼립니다. 區別로 어떻게 示範케이스로 몇 군데를 設置를 해서 그 다음 점진적으로 支援을 하겠다는 것인지, 또 이것을 해 봐서 안 되면 뭐 支援도 안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인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또 저희들이 의도한 바는 우리 老人들이 좋아하는 어떤 運動기구라든지 필요로 하는 運動기구를 충분히 深思熟考해서 選定이 되면 일률적으로 서울市에 있는 全 老人亭을 일괄 보급을 해서 그 혜택을 같이 주자는 그런 意味인데 이것 지금 關호해서 區別 示範 設置다 하는 얘기는 전체 老人亭을 일괄 支援하지 않고 일부 어떤 地域을 選定해서 해보고 그 다음 또 점차적으로 또 支援하겠다 뭐 그런 內容인 것 같은데.....

○家庭福祉局長 申泰姬; 豫算이 限定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한 區에 한 군데라든가 이렇게 設置를 해서 앞으로 擴大運營을 해 나가겠다는 內容인데.....

○康明秀 委員; 아니, 우리가 意圖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첫째 작은 운동기구지만 公正해야 되니까, 어떤 區의 老人亭에는 政府에서 支援 나오는 운동기구가 있고 어떤 老人亭에는 없다 이것은 公正하지 못하거든요. 어떤 政策이나 行政은 누가 봐도 다 公正해야 되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 實務 執行部에서 深思熟考하게 생각한 끝에 뭐 例를 들어서 발바닥 안마기계를 設置하는 것이 좋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 있는 全 老人亭을 一括 支援을 해서 公平 支援이 되어야지 이것은 區別 示範 設置다, 지금 어떤 意味에서 서울시의 老人亭들이 지금 다 운동기구 支援이 나올 것으로 지금 豫想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밸런스가 맞지 않고 뭐 1個 區에 한 군데 支援한다든지 또 뭐 한 군데만 듬뿍 支援하고 한 군데는, 뭐 다른 데는 안 된다든지 이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意圖하고 우리가 豫算編成하고 할 때에는 이러한 意圖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執行部의 생각을 확실하게 제가 짚어보고 들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치매老人이라고 그랬는데 저 도 社會福祉分野에 從事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치매라는 말 이것 제가 처음 듣는 말이고, 또 이 用語가 가지고 무슨 老人인지 제가 아직도 확실하게 理解가 안 갑니다. 또 꼭 이러한 이름을 붙인다면 좀더 아름다운 이름이 있을텐데 치매, 무슨 뜻, 무슨 意味를 지니고 있는지, 물론 이것이 서울시에서 지은 이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保社部라든지 이런 데서 지은 이름 같은데 이런 이름을 지을 때는 우리 一般市民들이 들어

서 금방 理解가 갈 수 있는, 또 이왕이면 아름다운 이름으로 지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또 이 치매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說明을 해 주십시오, 좀 알고 싶은데.

以上입니다.

○家庭福祉局長 申泰姬; 먼저 운동기구問題는 우선 저희가 현재 1億 5,000萬원의 돈 가지고는 전체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좀 選別로 해 본다는 뜻이 되어 있는데, 현재 老人福祉館 利用老人들이 選好하는 운동기구를 보니까 뭐 러닝머신, 벨트마사지기, 자전거, 또 綜合운동기구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康委員님의 말씀대로 되도록 전체 좀 按排가 되도록 한 가지씩이라도 豫算을 策定해 주신 意圖에 맞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市場調査도 안 해 보고 그러신 거예요?」 하는 委員 있음)

아니, 이게 區廳으로 해서 區廳 形便에 맞도록 設置가 되는 것인데 저희가 指針을 한번 하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李秉直 委員; 이것 말이에요, 작년에 豫算 中에서 특별히 우리 委員님들이 신경을 써서 만든 特別作業이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그것을 區에 조각조각 해서 이렇게 내서 보내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는가 하면 제가 예를 하나 들까요?

○家庭福祉局長 申泰姬; 네.

○李秉直 委員; 九老區 綜合福祉館 地下室에 住民들은 水泳場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그러는데 九老區議會에서 敬老理髮館으로 決定이 되어서 敬老理髮館을 開設을 했던 말이야, 開設을 하는데 그날 서울市의 누가 나왔는가 하면 그 老人會 會長이 나와서 區廳長이 초청장 낸 것부터 일일이 칭찬을 들

입다 하는데 우리는 먹은 것이 올라올 정도로다 區廳長만 들  
입다 칭찬을 하고, 敬老福祉館 뭐 하도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듣다 듣다 國會議員 몇 사람들 얘기  
하는데 제가 마이크를 뺏어서 이 敬老福祉館이 運營되는 것  
이 區議會 議員님들이 하는 것이고 나도 社會福祉委員會 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가 老人들을 위해서 말이야, 이 안마기  
를 해서 全 老人亭에 주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  
말이지요, 이게. 제가 그렇게까지도 얘기했던 사람인데, 區에  
다 주면 또 요 다음에 區廳長만 나가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아 놓고 KBS 무슨 放送다 불러서 이런 行事밖에 안 된다  
고. 이런 行事밖에 안 돼, 이게.

○家庭福祉局長 申泰姬; 네, 제가 參考해서 運營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車奉五; 다음, 또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申泰姬; 아, 그 다음에 치매老人은 치매가 우  
리 나라 말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기로도 日本에서  
나온 用語인데, 저희는 妄靈, 老妄老人.....

(「老妄, 妄靈.....」 하는 委員 있음)

네, 妄靈. 그래서 지금도 역시 치매, 저희가 用語를 치매로  
많이 쓰는데 理解가 안되고, 저희가 또 아시겠지만 日本의 書  
籍들을 많이 活用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李秉直 委員; 왜 日本말을 써요, 우리 나라 좋은 말을 놔두  
고?

○家庭福祉局長 申泰姬; 글썬,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저희가  
다른 말로 理解되기 쉽게 用語를 써 보겠습니다. 역시 저희도  
생각할 때 치매라고 하면 치매 또 說明도 하면서 事業說明을  
해야 되는 그런 事項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委員長 車奉五; 다음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끝냅시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長時間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業務報告와 質疑와 答辯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것을 確認도 했고, 또 해야 할 모든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發見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1年 동안 주어진 豫算에서 최대의 效果를 낼 수 있는 老人福祉, 家庭福祉, 靑少年福祉, 이 分野에서 열심히,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同僚委員님께서 더욱 激勵해 주시고 잘 지켜봐서 정말 千萬市民의 福祉向上에 一翼을 擔當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결실이 되어서길 바라면서 質疑 答辯을 終了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午後 4時부터는 江南病院 所管 業務에 대한 報告를 받겠습니다.

그 때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07分 會議中止)

(15時 36分 繼續開議)

○委員長 車奉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豫定은 4時로 우리가 잡았습니다만 시간을 좀더 절약하는 뜻에서 이미 모이신 분은 다 모이셨기 때문에 단축해서 續開를 宣言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존경하는 同僚委員님, 申鉉卓 院長님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이러한 時代에 굉장히 바쁘고 어렵고 귀중한 이 시간 이렇게 나오셔서 93年度 우리 業務報告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同僚委員님과 關係公務員 여러분에게 심심한 謝意를 올립니다. 특별히 내일 14代 우리 大統領就任式을 앞에 놓고 보다 더 우리 서울 市民이 바라는

새韓國 창조의 方向에 우리가 같이 同參하는 뜻에서 오늘 江南病院 業務報告와 質疑와 答辯을 통해서 더욱 우리 千萬市民을 향한 이러한 귀한 業務報告會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協力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2. 1993年度地方公社江南病院所管業務報告

(15時 38分)

○委員長 車奉五; 93年度 地方公社江南病院所管 業務現況報告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江南病院 申鉉卓 院長님께서 나오셔서 業務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江南病院長 申鉉卓; 존경하옵는 車奉五 委員長님, 그리고 社會福祉委員會 여러 委員님들을 모시고 저희 江南病院 1993年度 業務報告를 드리게 된 것을 먼저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3年度 저희 地方公社江南病院 主要業務報告를 報告 올리겠습니다.

.....  
(報告)

지방공사강남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報告中斷)  
.....

그래서 지금 완전한 決算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시다만 대개 決算이 油印物이 안되었을 따름이지 실지는 다 나와 있어서 92年度 저희들이 열심히 한 結果 昨年度의 그 自立度는

약 96.5% 될 展望이다 하는 것을 報告를 드립니다.

.....

(報告繼續)

지방공사강남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

以上으로써 今年度 業務計劃의 報告를 마치고, 다음은 한 가지 저번 第10回 定期會에서 李昌根 委員님께서 指摘을 해주신 病院 靈安室을 葬儀禮式場으로 할 用意는 없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病院에 돌아가서 여러 가지 檢討를 해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區廳하고 問議해서 協議를 展開해 왔습니다. 그래서 葬儀禮式場이 되어서 저희 病院이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 또 市民들 또한 料금이 줄어드는 것도 전혀 없습디만, 一般市民의 접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은 있기 때문에 江南區廳과 協議해서 事前審議를 받고, 저희 病院 現場에 區廳擔當者가 전부 出張을 나와서 본 결과 冷凍室도 24具를 冷凍할 수 있다면 충분한 容量이고, 염습실이라고 해서 殮을 하는 방도 충분하고 弔客 待機室도 總面積의 30% 이상이 충분하고, 또 계단이 2m 이상이라야 된다 그런 條項이 있어서 도저히 처음에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 靈安室은 1層은 病院 쪽에서 들어가고 2層은 炭川 堤防 獨길에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人口가 各層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2m가 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결론이 나서 駐車施設도 163臺의 駐車施設을 가지고 있어서 꼭 충족되기 때문에 내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區廳의 얘기는 大韓民國에서 葬儀禮式場은 한 군데도 許可를 내준 곳이 없다, 처음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月初에는 내

줄 수 있겠다 그런 確答을 듣고 있다 그러한 李昌根 委員님의 建議에 대한 答辯을 報告드리는 바입니다.

以上 저희 病院 93年度 業務計劃을 報告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車奉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業務報告 內容 가운데 質疑하실 內容이 있으시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李秉直 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李秉直 委員; 李秉直 委員입니다.

현재 江南病院의 製藥會社 去來數하고 都賣商 去來數를 숫자만 좀 밝혀 주시고, 製藥會社의 去來處를 숫자하고 도매상에 대한 숫자하고.

두 번째는 靈安室에서 屍身을 만지시는 분을 殮士 그 분에 대한 것이 그 靈安室에 대한 總計算에 이 양반에 대한 수고비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그 양반은 별도인지 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車奉五; 答辯 주시기 바랍니다.

○江南病院長 申鉉卓; 答辯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報告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製藥會社하고 去來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都賣商하고 去來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고, 企劃室에서 기억하고 있기는 약 27·8個 都賣商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靈安室에 殮襲士가 있는데 그 靈安室 모든 장제를 마치고 나면 그 殮襲士의 수고비는 거기에 포함되느냐,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傷痍勇士會에게 賃貸를 주어서 運營은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자세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그

것은 病院에 돌아가자마자 알아서 별도로 李秉直 委員님에게 당장 내일이든 모래든 즉시 報告를, 전화상으로라도 報告를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秉直 委員; 그 두 번째 事項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計算書에 그 양반의 것을 넣어서 정상적으로다 이렇게 壽衣 얼마, 棺 얼마, 뭐 얼마, 이 양반 費用이 얼마 이렇게 한다면 괜찮은데, 통념적으로. 그게 없다손치면 사람 봐가면서 돈 뜯는 問題가 輿論이 거기서 나빠진다고, 輿論이.

○江南病院長 申鉉卓; 여기 있습니다, 資料가 있습니다. 答辯 올리겠습니다.

殮襲費가 따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小殮, 大殮, 두 가지가 있네요, 똑같은 것이 아니고. 小殮은 8萬원의 追加費用이 붙고, 그 다음에 大殮은 10萬원의 費用이 붙는 제록스를 떠나고 온 게 있군요.

○李秉直 委員; 그렇다손치면 거기서 利用者에게 별도로 돈을 달라고 그렇게 때를 써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江南病院長 申鉉卓; 아니, 그런데 이것이 告示되어 있는 價格을 반드시 붙여 놓고 그 이상 못 받게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告示되어 있는 告示金額이 엄습비 그래서 小殮 8萬원, 大殮 10萬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徵收를 하고도 팁이라는 名目으로 그 利用者한테 뜯어낸 단 말이에요, 그게.」 하는 委員 있음)

글쎄, 담배값을 주는지 어쩐지 그것은 저희가 運營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아서.....

○李秉直 委員; 그래서 그 부분의 그 종합적인 計算書로 의한 그것 외에는 利用者한테 돈을 더 달라, 뭐 달라, 시비하고 조금 주면 또 이것을 돈이라고 냈느냐고 돈을 던지고 말이지요,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하셨으면 좋고, 그 다음 제가 아까 첫 번째에 그 製藥會社의 直去來는 없고 都賣商만 去來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의 病院 藥事業에 대한, 어디에서 運營 指針에서 의한 것입니까?

○江南病院長 申鉉卓; 아니, 保社部 方針입니다. 그것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都賣商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李秉直 委員; 그러면 問題點이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都賣商이란 말이지요, 참 엄청난 것을 오늘 느끼게 되네. 都賣商이란 그 많은 데서 필요로 하는 大量 나갈 수 있는 量만 都賣商에서 갖다 놓는 것이지 한 두 사람이 필요한 藥을 都賣商에선 절대 購入을 안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江南病院長 申鉉卓; 네. 그렇지요.

○李秉直 委員; 그렇다손치면 病院에서 그 都賣商에다 藥을 해도 藥을 못하니까 요러한 藥은 천상 診療醫師께서 그 藥이 없으니까 患者들한테 이것은 나가서 사라, 나가서 사라, 대개 阮外 處方을 發付할 수밖에 없네요?

○江南病院長 申鉉卓; 그런데 李秉直 委員님, 저희 病院이 메이커하고 直去來를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약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모든 都賣商이 모든 藥을 다 비치하고 있느냐, 조금 조금 가끔 쓰이고 아주 少量으로 쓰이는 藥은 비치할 안 해 놓고 있으니까 결국 患者들에게 外部에 가서 사 오라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줄은 제가 압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 쓰는 藥은 單價契約이라고 해서 年初에 都賣商들이 入札을 하도록 해서 購入하고, 작은, 많이 안 쓰는, 예를 들어 어떤 것은 1년에 한 3萬원, 4萬원 藥값이 所要되는 그런 藥 種類도

있습니다. 이것은 入札해서 一時로, 말하자면 購買를 합니다. 單價契約이 아니고 購買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량 쓰는 약, 자주 안 쓰는 약, 금액이 20만원이하, 연간 20만원이하 쓰는 약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쓰기 때문에 都賣商이 조금 쓰는 藥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사 와라 그러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李秉直 委員; 지금 말씀하신 中에 그 약사업이 이렇게 나오는데 조그마한 醫院도 製藥會社하고 直去來를 하고 있다고. 하물며 큰 綜合病院에는 많은 分의 藥師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약사업하고는 관계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江南病院長 申鉉卓; 조그마한 個人 醫院은 오히려 藥師가 PR을 하러 가서 그 한 가지 種類라도 藥을, 年間 쓰는 많은 藥을 사 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큰 病院은 都賣商하고는 直去來를 안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病院 같은 데서는 그것을 어기고 하기가 대단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全的으로 單價契約은 都賣商 對象이고, 製藥會社하고는 전혀 단돈 10원도 오고 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少量 購買는 單價契約을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한 量만큼, 말하자면 2·30萬원 이하, 少量 이런 것은 一時的으로 한꺼번에 購買를 해서 쓰기 때문에 都賣商에 藥 種類가 적다고 해서 外部 處方을 끊어서 院外 處方을 끊어서 藥 사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李秉直 委員;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 江南病院의 藥品 사업에 대한 것은 많은 問題點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多量의 藥을 사게 되게 되면 이게 소모가 안 되다 보면 使用期間도 지나고 아무래도 藥이라는 것은 신선

해야 되는데 在庫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醫療保險에 해당되는 藥은 직접 購入을 해서해야 되는데, 醫療保險酬價에 해당되지 않는 藥은 뭐하다 치더라도, 이러한 것을 都賣商에다 일일이 부탁하게 되면 都賣商이라는 것이 참 다양하게 藥을 具備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어지간한 것은 患者에게 직접 사오라고 하게 되면 保險 속에 해당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 利用, 江南病院 利用患者들이 대부분이 원외처방을 많이 利用한다손치면 상당히 藥品에,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을 들이는 것 같은 감이 나는데 그 점을 다시 한 번 研究해 보시기 바랍니다.

○江南病院長 申鉉卓; 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補充質疑……」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車奉五; 卓炯春 委員님.

○卓炯春 委員; 補充質疑입니다. 江南病院은 아까 李秉直 委員께서 質疑하신 원외 處方인가 外部에서 藥을 사오라는 그런 例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江南病院長 申鉉卓; 아니지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것이 가장 많으냐 하면, 예를 들어서 李秉直 委員님은 아시겠지만 알부민 같은 게 있습니다. 알부민 같은 것을 많이 사서 재 놓으면 그것은 상당히 保管에 問題가 있습니다. 상당히 冷藏室에 넣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分量을 아주 적게 해 놓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알부민 같은 高價 營養劑, 保險에서도 그것은 삭감되기가 6·70% 削減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少量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줘라, 그런데 많이 스톡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젊은 醫師들이 막, 예를 들어 火傷患者 같으면 하루에 그것을 다섯 포인트 여섯



과인트, 링거병 같은 것 다섯 병, 여섯 병 막 놓아 버립니다. 그러면 醫療保險組合聯合會에서 막 削減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적게 保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한 20병 保管을 하고 있다가 뭐 火傷患者 3名이 들어왔다, 이를 쓰고 나면 없다 그럴 때는 새로 購入하기까지 급하니까 患者 保護者한테 사 오십시오.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또 한가지 種類는 아까 李秉直 委員께서 말씀하시다시피 保險에 해당이 안 되는 藥이 있습니다. 保險에 해당이 안 되는 藥은 좀처럼 쓰지 않는 藥입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사 놓아서 患者들에게 해주나 患者가 사서 하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保管도 안하고 있고 사지도 않고, 또 아까 李秉直 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都賣商도 備置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患者保護者들에게 가서 사오라고 해서 그건 뭐 자기가 사오면 그냥 놔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어느 病院이나 다 있습니다.

○卓炯春 委員; 그런데요, 워낙 院長님께서 經營合理化 側面에서 싼 藥만 찾다 보니까 藥의 效果가 없어서 고가약품은, 또 質이 좋은 藥은 備置를 안 해 놓고 그래서 醫師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싼 藥으로 해서는 治療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비싼 藥을 사오라 하는 그런 例가 없는지?

○江南病院長 申鉉卓; 비싼 藥은 저희 病院에 없는 藥은 없습니다. 어떤 藥을 대시더라도 저희 病院에 있습니다. 備蓄量이 적으면 적었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卓炯春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車奉五; 감사합니다. 金鍾源 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金鍾源 委員; 金鍾源 委員입니다.

지금 院長님께서 說明하신 것 중에서 보면 經營合理化로 生産性 向上하는 말씀으로 92年度에 診療人員 目標을 43萬 9,305名, 그래서 39萬 5,941名을 診療해서 90.1%를 達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3年度 目標을 92年 目標보다 줄어서 41萬 200名 이렇게 지금 資料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收益面으로 보면 92年度는 174億 2,200萬원이어서 92.9%를 達成을 했는데 93年度 目標은 183億 8,200萬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診療人員은 많이 줄고 收益은 많이 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 原因이 診療酬價가 引上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또 理由가 있는지를 質問을 드리고, 또 한가지 93年度 豫算總括을 說明하실 적에 제가 혹시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2年度の 自立度가 96.5%라고 말씀하셨습니까?

○江南病院長 申鉉卓; 네.

○金鍾源 委員; 그런데 지금 이 資料를 보게 되면 92年度の 目標가 92.1%, 93年度 目標은 92.3%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92年度の 決算이 確定은 안 되었지만 96%가 上廻했는데 그럼 93年은 그보다 떨어져서 92%가 되겠다는 말씀인지, 지금 이제 人力이 T.O에서 30名이 不足하다, 그 안 쓰고서 많이 節減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T.O를 많이 만들어 놓고 불필요한 人員의 T.O를 만들어 놓고 人件費가 줄어들어서 自立度가 높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 自立度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사실 良質의 醫療서비스가 좀 소홀해질 수도 있고 또 對民서비스도 좀 소홀해질 수가 있지 않느냐, 江南病院 立場에서는 사실상 自立度에 너무 그렇게 신경을 써서는 안 되지 않겠나, 요 부분도 質問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지난

번 社會에서 物議를 일으켰던 人工 임신, 江南病院에서도 實施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만 質問을 드립니다.

○江南病院長 申鉉卓; 네, 答辯 드리겠습니다. 우선 金委員님, 제가 아까 報告드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人員은 주는데 어떻게 酬價는 올라가느냐, 그리고 이 目標을 昨年보다도 적게 잡느냐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6페이지에 보면 92年度의 目標을 43萬 9,000名으로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達成하고 보니까 39萬, 40萬名도 채 達成을 못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目標을 잡았다 그런 결과가 되는 셈이지요. 그래서 今年度에는 41萬 200名을 잡았거든요. 그럼 작년도에 했던 것보다는 約 1萬 5,000名 더 診療하겠다는, 너무 욕심을 크게 해서 다 이룩하지도 못할 人員數를 잡지 않고 그렇게 잡았다, 그래서 그렇지 92年度보다 93年度 人員을 적게 잡은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人員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酬價가 올라가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5% 診療酬價가 保社部에서 올리기로 되어서 新聞에 發表가 되어서 3月 1日부터 施行이 됩니다. 그럼 5%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5%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酬價가, 藥값도 아무래도 올라갑니다. 藥값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材料費가 올라갑니다. 그 材料費는 또 材料費대로 올라가니까 대개 5·6%는 작년보다 올라가는 면이 있습니다. 똑같은 診療를 해도 그런데, 그런데 人員數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더 많아지느냐, 그것은 酬價도 올라갈뿐더러 예를 들어서 엑시머레이저 近視手術이다 그러면 한 눈을 하면 한 눈 手術費가 80萬원 됩니다. 두 눈을 하면 患者 한 사람이 160萬원, 高度의 精密裝備를 具備할수록 그 診療酬價가 큰 것이 있습니다. 또 心肺機를 導入하고 안

하던 心臟手術을 저희가 施行했습니다, 아까도 報告드렸습니  
다만. 그러면 한 件을 하면 그 한 件이 700萬원, 800萬원 이  
렇게 되니까 외형상 最新裝備가 늘어날수록 상당히 酬價가  
크게 늘어나는 면이 있기 때문에 醫療保險酬價가 올라가는  
것하고 겹쳐져서 人員數는 오히려 좀 줄어도 診療酬價를 더  
많아지는, 막 市民들에게 돈을 긁어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연히 그래지는 면이 있다는 것을 신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에 96.5%라고 그랬는데 페이지에 보면  
92.1%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9페이지에 自立度  
92.1%다, 또 93年 92.3%다 그런 것은 豫算上 自立度입니다.  
豫算을 짤 때 이렇게 되도록 짰다 그러는 말씀이고요. 제가  
아까 92年度에 96.5%를 達成했다고 그렇게 짜 놓고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施行해 보니까 年末에 가서 決算하니까  
96.6%나 達成을 했더라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92.1%하고 96.5%가 矛盾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豫算을  
짤 때 豫算自立度라 그래서 이 정도로 짜 놓았는데 나중에  
施行을 해 보니까 96.5%까지 達成을 했다 그 말이 되는 것  
입니다.

그 다음에 T.O를 오백 몇 名이나 해 놓고, 일부러 T.O를 많  
이 잡아놓고 그 다음에 30餘名 줄여서 568名만 쓰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昨年度 약  
10월경부터 患者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病院이 그래서 간  
호원들이 퇴직하고 있는 간호원을 보충하지 않기 시작했습니  
다. 그래서 그 대신 病院을 다 돌릴 수가 없어서 病室을 하나  
비워 버렸습니다. 약 5·60베드 病室을 비워 버렸습니다. 비  
워 놓는 것이지요. 人力을 쓰지 않고 患者가 적으니까 있어  
봤자 텅텅 노는데 무엇 때문에 그거 하느냐, 그런데 이제 덕

택에 요즈음 죽어납니다. 이번 放學 2月 되어서 갑자기 患者가 많아져서 그냥 오늘 현재 사백사십 몇명이 들어갈 방이 없습니다. 도저히 방이 없습니다. 도저히 방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열려고 해도 갑자기 못 엽니다. 왜냐하면 看護員을 구해야지요. 그래서 公告를 내서 看護員 面接하는 것이 3月 3日입니다. 3月 3日 面接을 해야 看護員을 募集해서 3月 4日이라야 그 비워 두었던 病室을 하나 열어서 더 患者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入院患者가 별로 없는데 60名 病棟에 뭐 45名, 42名 이라는 것보다 몇 病棟을 비워서 한 쪽으로 몰아버리면 한 病棟 비워놓고 人員數는 줄여 버리고, 이런 식으로 經營을 했고, 필요없이 T.O를 많이 따놓고 그리고 줄여서 運營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物議를 빚고 있는 人工受精을 江南病院은 하지 않느냐 하고 물으신 데 대해서는 저희 病院에서는 아직까지 人工受精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가 되자면 備置해야 할 裝備만 하더라도 體外受精, 人工受精을 하자면 상당한 裝備를 더 補強해야 되고 워낙 드는 돈이 많아서 하고 싶어도 그것은 지금 못하고, 그다지 뭐 高度의 技術도 아니지만 裝備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단 한 件도 현재 안하고 있다 그러는 答辯을드립니다.

○委員長 車奉五; 네, 감사합니다.

또 林承后 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林承后 委員; 林承后 委員입니다.

지금 江南病院에서는 院長 이하 全 職員이 친절하고 신뢰받는 病院像을 定立을 하고 良質의 診療와 緊急을 要하는 應急 醫療센터의 運營 등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 同僚 두 委員께서 質疑하신 內容 中에서 補充的인 立場에서 疑問點과 또는 改善을 바라는 뜻에서 두 가지 質疑를 하려고 합니다.

5페이지 人力에서 醫師의 定員이 專門醫, 一般醫, 레지던트, 인턴 합해서 140名인데 실지 現員은 15名이 缺員된 125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缺員 中 15名은 專門醫와 一般醫가 이 中에서 몇 名이나 하는 것을 答辯을 해 주시고, 또 15名이 充員되지 못하고 있는 理由가, 또는 原因이 특별히 있으면 이것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2年度에 離職한 專門醫가 7名 있는데 그 자리도 充員이 다 되었느냐, 이 사실 與否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人力은 건축운영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醫師와 診療는 이것은 不可分の, 診療와는 아주 불가분한 이런 關係에 있기 때문에 專門醫나 一般醫가 缺員되어 있는 理想的인 診療가 과연 病院運營에 이게 합당한 것이냐 그런 次元에서 이 問題의 사실 與否를 確認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李秉直 委員이 말씀한 藥品問題입니다. 지금 藥品의 種類에 대한 많은 質疑와 答辯을 해 주셨는데, 本委員은 品質的인 그런 側面에서 이 質問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江南病院이 藥品購入單價가 다른 病院에 비해서 월등히 低廉한 價格으로 豫算節約에 확실히 寄與를 해 왔다 이렇게 報告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醫藥品의 藥效에 대한 專門的인 藥效 評價를 보면 藥品의 製造方法이나 製品化 過程이나 管理的인 이런 側面에 따라서 同一한 成分間에도 藥效 差異가 懸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一般市民들도 똑같은 成分의 藥이라도 유명한 製藥會社나 또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藥品名을 選好를 해서 그런 藥을

購入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常識化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藥에는 品質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병원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약품의 단가를 중시하는 측면에서 약품을 구입했다면 여기에는 양질의 治療를 위해서는 크게 矛盾이 있는 것이 혹시 아니냐 하는 그런 問題를 提起를 해 봅니다. 再昨年 91年度 本 常 委가 강남병원 現地 踏査를 했을 당시에 地下室 倉庫에서, 本 委員이 藥品倉庫에 가서 確認할 때 그러한 低質 藥에 대한 강한 疑惑을 받았습니다, 솔직하게. 本委員이 한 삼십 몇 年間 醫藥品을 取扱했던 사람인데 그 倉庫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會社들이 너무나 많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향간에, 本委員이 確認은 못했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금 江南病院에서 治療받고 있는 患者 中에서나 또는 擔當하고 있는 醫師 中에서 江南病院이 具備하고 있는 그런 藥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藥品을 不信을 해서 그 藥品을 쓰지 않고 外部의 藥을 購入해서 쓰도록 이렇게 措置하고 있는 그런 事例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事實 與否를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車奉五; 答辯 주시기 바랍니다.

○江南病院長 申鉉卓; 林承后 委員님 質問에 答辯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人員數를 줄여서 經營하는 것은 다 좋은데 醫師가 不足해서야 되겠느냐, 왜 醫師가 15名 不足하냐 이제 이 말씀이 계셨는데, 全的으로 同感입니다. 그런데 이제 季節的으로 醫師 15名 不足에 대해서 說明을 올리겠습니다. 인턴, 레지던

트는 언제나 2月末을 기해서 3月 1日부터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月만 되면 全員 다 擴充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病院의 試驗에 合格해 놓고 軍에 服務하고 있는 醫師, 軍醫官으로 服務하고 있는 醫師는 4月末까지가 服務期間입니다. 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除隊는, 軍醫官 除隊는 全員이 4月末오 除隊를 합니다. 그러니까 合格을 해 놓고도 3月, 4月은 勤務하지 않아도 레지던트 1년차는 認定해 주는 것이 法으로 確定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軍醫官을 하고 보니까 軍醫官이라든가 公衆保健醫라고 있습니다, 시골에 勤務하는. 그래 지금 거기에 勤務하고 있는 醫師가 11名이 있습니다. 11名이 있기 때문에 이 11名은 4月末, 5月 1日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필요로 하더라도 바빠 죽더라도 이것은 充員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또 空席으로 있어야 5月 1日 發令狀을 주고 採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名은 缺員의 缺員이 아니고 그런 軍醫官, 公衆保健醫 때문에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것이고, 5月 1日까지 비겠습니다만. 그리고 專門醫의 지금 현재 缺員은 4名이 있습니다. 4名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내일 모레 이제 3月 2日 되면 몇 사람 또 옵니다, 저쪽 이제 다른 데 質疑하던 데에서. 이쪽으로 오고하기 때문에 醫師의 充員은 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얼마나 退職을 했느냐 물으셨는데 작년에는 일곱 사람이 退職을 했습니다. 專門醫가 일곱 사람이 退職을 했는데 전부가 저희 病院보다 나은 곳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이 저희 病院보다 큰 病院에, 예를 들면 國立醫療院으로 간다든가 또 인제大學 백병원에 助教授가 되어서 助教授로 발탁되어서 간다든가 또 삼성醫療院이라고 지금 建築中에 있습니다만 삼성醫療院에 合格을 하고 나면 2年 동안



美國에 留學을 보내 줍니다. 病院 開院할 때까지 고스란히 2年을 全額을 뒤를 대주고 美國에 留學을 보냅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이것이 세 사람이나 됩니다, 네 사람이나 됩니다. 이러니 일곱 名 中에 전부가 더 나은 病院에, 더 큰 病院에, 뒤 大學 助教授로 가는 거야 어찌겠습니까? 그만큼 저희 江南病院의 醫師의 質이 높다는 것을 오히려 反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 뭐 다리를 붙들어 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금년에 들어서도 醫師 두 사람이 벌써 美國을 가고 日本을 갔습니다.

그래서 都合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아홉 名이 그만두었지만 3月初가 되고 5月初가 되면 구하기 어려운 한 둘을 제외하고는 다 充員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藥問題에 있어서 同一成分의 藥이라도 메이커에 따라서 效果가 전혀 다르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렙토마이신이다. 제가 알기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열 몇 군데 製藥會社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스트렙토마이신 그러면 대단히 비쌉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메이커, 林委員님께서指摘하여 주셨듯이 이름 없는 메이커다, 왜 그것을 쓰느냐, 품질이 더 나쁠 것 아니냐 하시겠지만 그것은 公共病院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國立保健院에서 스트렙토마이신 1g이 들어 있다고 딱 保證이 되면 國家가 保證을 하는 것입니다. 國家가 保證을 한 것인데 유독 우리는 유한양행의 스트렙토마이신을 쓰겠다 그래서 딱指摘해서 入札을 하면 그 날로 잡혀 들어갑니다. 그 날로 모가지가 떨어지고 監査院에 監査 받으러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스트렙토마이신, 동아제약 스트렙토마이신, 딱 세 個를 指定해서 하면 注意書를 받아요. 그렇게 入札을 할 수가

없습니다, 公共病院은. 私立病院이야 자기 마음대로지요. 내가 내 個人으로 開業하고 있다면 내가 사고 싶은 것 사지요, 뭐. 유한양행 OK, 뭐 자기 指定하고 싶은 것 사지만 公共機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林委員님, 藥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번에도 藥에 대해서 여러 번 指摘을 해 주셨는데 저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病院에 藥이 있는데 그 藥을 쓰지 않고 다른 藥을 두고 이것은 群小메이커의 藥이니까 더 유명 메이커의 藥 사오라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藥 사오라 그런 것이 需給을 잘못해서 몇 가지 藥이 品切이 되어서 미처 못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서 藥 사오라 그러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좋지 않은 藥을 사 놓았기 때문에 같은 스트렙토마이신이라도 그러면 유한양행 스트렙토마이신을 사 오라 그런 일은 아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林承后 委員; 네, 그런데 그 抗生劑나 國家에서 檢定할 수 있는 그런 品目에 대해서는 어떤 會社의 藥品도 동일하게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除外한 다른 藥에 대해서 品質이 똑같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藥師나 醫師의 양심에서 좀 考慮해야 될 事項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얘기하는 것은 스트렙토마이신, 이런 抗生劑라든가 뭐 그런 국가검정필이 요하는 그런 약품이 아닌, 그런 다른 藥에서 우리가 양심에 조금도..... 받지 않는 그런 믿을 수 있고 누구라도 자타가 품질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藥을 쓰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는 그런 뜻에서의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醫師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작년에 일곱 분에 대한 離職 醫師 分들의 名單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國立醫療院 또 삼성醫療院 참 좋은 데로 전부 가시고, 참 좋은 그런 현상인데, 또 이런 얘기가 確認한 바는 아닙니다만 지금 그 醫師들 그 삼성醫療院에서 무조건 2年間 海外研修를 시켜서 高度의 技術과 좋은 智識을 習得해 온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病院에 신뢰받고 또 더 좋은 그런 醫療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바탕이 醫師의 質的向上이다 하는 側面,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江南醫療病院에서 그런 醫師들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못하고 있다하는 그런 얘기가 저한테 들렸습니다. 醫療, 우리 市立病院의 그 質 높은 그런 醫療를 위해서 지금 의사들 참 앞으로 좋은 그런 발전성 있는 그런 의사들을 해외 많이 보내고 또 醫師들이 원하는 것, 豫算이 가능하면 좀 많이 보내서 그 좋은 知識이나 모든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市 江南病院이 다른 病院보다도 더 좋은 그런 신뢰와 더 좋은 그런 醫療를 公認 받는 그런 病院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느냐, 그런 것에 좀 많이 留意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以上입니다.

○江南病院長 申鉉卓; 감사합니다.

사실 林委員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저희 江南病院의 醫師라는 것은 俸給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能力을 키울 수 있는 機會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외람된 말입니다만 단돈 10원도 그런 豫算이 없다가 公社가 되고 난 뒤에 제가 市에 들어가서 그냥 교섭을 한 결과 한 사람씩, 두 사람씩 2·3週씩 外國을 보내고 하다가 지금은 豫算에서 年間 한 3·4名을 약 2·3週씩 外國

보낼 정도의 그 豫算만 確保가 되어 있고, 이나마 이것도 다른 市立病院에는 단돈 10원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林委員님 도와주신다면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職員들을 海外 보내서 最新 醫學을 배워 오도록 이렇게 될 수 있도록 本廳하고 協議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車奉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委員님.....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康明秀 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康明秀 委員; 康明秀 委員입니다.

우리 申院長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報告에서 제가 조금 어떤 실망을 하게 된 것이 92年度에 目標을 이제 設定을 했는데 그 目標에 상당히 未達이 됐다, 그래서 93年度에는 어떤 현실적인 바탕 위에 目標을 設定을 한 것이 0.1%, 그러니까 自立度 92年度에 92.1%인데 92.3%로 이렇게 設定을 하게 되었다 하는 背景 說明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조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江南病院이 이렇게 自立하기가 굉장히 힘든 病院인가, 제가 豫想하기로는 앞으로 3년이든 4년 뒤에는 우리 江南病院은 완전히 自立이 해결되는 그런 샘플적인 그런 病院으로 成長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2年度의 目標에서 이렇게 未達이 되고 93年度 目標 設定을 이렇게 下向調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江南病院이 自立할 수가 없는 病院인가 하는 데에 저는 상당한 회의를 가지면서 몇 가지 質問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江南病院이라고 하면 지금 어느 餘他 다른 市立病院보다 地域이나 어떤 位置條件이 굉장히 좋고, 또 우리 훌륭한

院長님과 좋은 스텝들을 갖고 계시고 또 그 동안 서울시에서 많은 施設을, 裝備를 支援을 해서 상당히 현대화된 그러한 病院인데 우리가 과연 그러면 다른 病院과 比較해서 여기가 自立이 안 되는, 自立 成長을 沮害하는 가장 근본적인 큰 理由들이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게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좀 궁금합니다. 무엇 무엇 때문에 우리 江南病院이 이렇게 自立에 沮害가 되어서 아직도 서울시에서 支援을 받아야만 運營이 가능한 病院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궁금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病院에 보면 어떤 負債도 있고 또 그 病院을 運營하면서 어떤 利潤을 다른쪽에, 학교사업이든 다른 쪽에도 좀 이윤을 갖다 쓰고 있고, 또 個人病院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또 어떤 자산증식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 江南病院이 우리 申院長님이 個人病院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精神으로 이것을 運營했을 때 과연 自立이 안 될 것인가 그런 데 하나의 質問을 가지면서 우리가 自立이 안 될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런 合理的인 어떤 타당한 理由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經營上의 不實이라든지 또 어떤 불합리한 그런 經營으로 인해서 이 自立에 어떤 問題가 있다면 그것은 빨리 是正하고 改善해서 우리 江南病院은 市立病院 中에 가장 우수하고 또 어떤 自立의 意志를 이렇게 성취해 낸 그런 어떤 샘플적인 病院이다, 이것을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그 어떤 根本적인 이러 이러한 問題 때문에 안된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理由를 조금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우리 問題를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 公務員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

은 健康입니다. 아마 우리 市議員들이 지금 政務職公務員인가 뭐 名稱은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海外出張이라든지 國內 출장 모든 出張에 그런 公務員에 준한 그런 支援 아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4年 동안 無報酬名譽職으로 열심히 奉仕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議員의 健康問題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4年 동안 奉仕하면서 우리 市議員들 132名의 健康도 우리 社會福祉分科에서는 상당히 챙기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 市議員들이 뭐 다만, 한 2년에 한 번 정도라도 정상적인 어떤 身體檢査를 해서 健康에 대한 체크도 할 필요가 있다, 健康해야 많은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江南病院 院長님 생각으로는 어떠한 節次를 밟아서 좀더 合法的으로, 順理的으로 밟아서 우리 市議員들의 健康問題를 체크하는 그 어떤 解決方法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節次 같은 것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車奉五; 네, 감사합니다. 答辯 주시기 바랍니다.

○江南病院長 申鉉卓; 康委員님께서 첫 번째가 도대체 강남병원이 제일인데 自立할 수 없느냐, 92.1%에서 92.3%로 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조금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봐 주십시오. 92.1%다, 92.3%다 그런 것은 豫算을 編成할 당시에 그렇게 짰다 그런 것이고 運營을 하다 보면 아까 報告를 드렸습시다만 昨年에는 96.6%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재작년에, 91年度는. 昨年도는 96.5%밖에 못했어요, 0.1% 91年度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96.5·6%가 한도냐, 98%, 99%, 100% 自立은 못하겠느냐, 저도 사실 康委員님 못지 않게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해 보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醫療保護患

者들이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30%씩  
 割引하고 저리 割引하고 이리 割引하고, 또 받을 것은 私立病  
 院처럼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모든 國·公立病院이  
 육십 몇%, 칠십 몇% 이렇습니다. 서울大學病院 하나를 除外  
 하고는 警察病院이다 報勳病院이다 전부가 60% 70% 그런  
 실정이고, 다른 市立病院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病院은 그만큼 잘 했는데 왜 이제 줄어드느냐 라고 질  
 타도 하시겠지만 주위에 옛날에 없던, 옛날에는 전혀 없었습  
 니다만, 영동세브란스 病院이 들어왔고, 聖母病院이 江南에  
 썼고, 그 다음에 옆에 아산재단 중앙병원이 1,000베드가 들  
 어왔고, 또 지금 1,000베드를 늘립니다. 그리고 뭐 警察病院  
 도 江南으로 왔고, 그 다음에 삼성病院이 서고 있습니다. 갈  
 수록 그 전보다 자꾸 못해집니다. 與件이 자꾸 나빠집니다.  
 물론 저희 職員들도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과  
 거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가 보다는 江南이 무지무지하게  
 發展하고 發展해 나가고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 동안에  
 상당히 發展해 왔다, 우리 노력이 없었다고는 못하겠지만. 그  
 런데 그게 지금은 너무 큰 대형병원들이 들어와서 경쟁상대  
 가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경쟁상대가 마구잡이 들어오고 있  
 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에는, 과거에는 저희 江南病院이 公社  
 後에 98%, 98.4% 自立度を 達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國會에서 야단을 맞았습니다. 院長이 숫자놀이 해서 요렇게  
 낮추어 놓은 것 아니냐 그리고 야단을 맞은 적도 있었습니  
 다만, 지금은 확실히 그때보다 못해 나가고 있다 그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障礙要因이 있다면 뭐냐 그러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주위에 너무 큰 病院, 대형병원, 싸울 수 없는 대형병원

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位置로 본다면, 제 個人 생각이라면 강남병원이 있고 보라매病院이 있다면 이것은 혈값으로 팔고 그쪽으로 가야되는 것이 아마 經濟原理를 따라가는 만큼 그 立地條件이 이 쪽이 못해져 가고 있다, 그게 큰 要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2名에 달하는 市議員님들, 이것은 方法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社會福祉委員會에서 公文만 한 장 해서 저희 病院에 보내 주시면 저희 病院이 스테디해서 이런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하는데 어떨까요 그래서 本廳 醫藥課, 保社局長을 통해서 市長 決裁만 말으면 議員님 여러분의 負擔을, 예를 들어서 뭐 20萬원이 든다 그러면 그것을 50% 디스카운트해서 어떤, 環境美化員 그런 것도 前에 市長님을 지내시던 金庸來 市長님이 環境美化員 後援會長이 되시고 난 뒤에 公文을 저희 病院에 보내 오셨어요. 그 清掃하는 서울市民, 清掃하는 美化員들 굉장히 疾病이 많다, 이것을 좀 그것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자기 負擔率이 적도록 줄여줄 수 없느냐, 公文을 받아서 저희들이 起案을 해서 檢討해서 市에 承認을 받아야만 施行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社會福祉委員會에서 公文만 저희 病院에 보내 주시면 그것을 根據로 해서 저희들이 意見을 나열해서 本廳에 올리면 길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길은 있다 그런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車奉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同僚委員님 質疑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하는 委員 있음)

네, 李秉直 委員님.



○李秉直 委員; 李秉直 委員입니다. 아까 제가 殮士, 靈安室에.....

○江南病院長 申鉉卓; 네.

○李秉直 委員; 그것에 대해서 기왕이면 확실히 알아야 되겠기에 그런데, 8萬원, 10萬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래 院長님께서 그 病室도 男子病室에 女子入院 못 시키고 女子病室에 男子, 老人病室에 애들 못 入院시키고 그렇듯이 여기도 女子와 男子 區分, 또 老人네와 애들 區分, 이런 原理에서 8萬원, 10萬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江南病院長 申鉉卓;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秉直 委員;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확실히 좀 알아 주십시오.

○江南病院長 申鉉卓;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委員長 車奉五; 또 다른 委員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長時間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業務報告도 잘 해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質疑와 答辯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것을 確認도 했고, 해야 할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發見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1年 동안 이 江南病院이 더욱 發展해서 정말 低所得層, 정말 불쌍한 내 이웃, 서울市民을 위한, 또 서울市民의 우리 江南病院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귀한 우리 機關에서 수고하시는 申鉉卓 院長님 이하 關係公務員들에게 더욱 분발해 주시고 정말 수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同僚委員님들께서 더욱 격려해 주시고 잘 지켜보아서

정말 江南病院만은 우리 서울시의 시민을 위한 귀한 이러한 아름다운 病院이다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協力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모든 日程은 전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46分 散會)

---

○出席委員

車奉五 金鍾源 李秉直 朴光勳

林承后 康明秀 卓炯春

○專門委員

金南中

○出席公務員

家庭福祉局長 申泰姬

江南病院長 申鉉卓